

### 후보 5인5색...재산·출마 이력 제각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무패 경력'·이정현 '10번째' 도전 눈길 강은미 유일 여성...이종욱·김광만은 첫 출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대 시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들이 출마 이력과 재산, 전과 기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른 정치적 이력을 드러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64),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67), 이종욱 진보당 후보(59), 강은미 정의당 후보(55), 김광만 무소속 후보(64) 등 5명이 등록했다. 민형배 후보는 광산구청장 재선과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재선을 모두 승리로 기록한 '무패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선거 출마다.

1995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광산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후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을 거치며 광주와 전남, 수도권 선거에 잇따라 도전했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4년 새누리당 소속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2016년 순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됐지만 이후 2020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전남도지사 선거, 2024년 전남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이 후보는 육군 31사단에서 병역을 마쳤고 12억47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지만 한국방송공사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2019년 방송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종욱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출마다. 해군 하사로 만기 전역했으며 4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4년 읍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2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은미 후보는 이번 선거 유일의 여성 후보이자 여덟 번째 입후보다. 2006년 민주노동당 소속 광주 서구의원, 2010년 광주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고,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광주시의원 재선거와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강 후보는 2억43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기록은 없다. 자녀 2명은 모두 육군 복무를 마쳤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이번이 첫 출마다. 육군 9사단에서 중사로 복무했고 2억2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과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통합교육' 밑그림 경쟁...정책 대결 본격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SI교육·학생복지·교육분권 앞세워 지지층 공략 미래인재 육성·교육격차 해소·민주교육 비전도

6·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가 4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물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지역 인재 육성,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치 강화 등 통합시대에 걸맞은 교육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는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인재 양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와 가정 '전남광주교육과정에발평가' 설립, AI·에너지 특화 영재학교 추진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교육기부수당 확대와 교복·체험학습 단계적 무상화,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인재양성교육위원회' 설치와 권역별 교육자 치구 운영 등을 통해 통합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선 후보는 '지역 명문고 5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특화학교와 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등을 육성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또 학생 1인 1AI 가정교사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1000 드림 펀드'를 제안했으며,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교육행진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청 신설 공약도 발표했다. 장관호 후보는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 체계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초학

력 전담교사제와 중학교 '3코칭 시스템', 고교 맞춤형 진로·진학·취업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15명 수준까지 감축하고 '혁신학교 2.0'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통PASS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기본교육수당 확대 등 교육·문화·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강숙영 후보는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감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정책과 예산을 합의제로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와 독립형 '통합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읍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학부모·교사·시민 참여를 확대해 소통 중심 교육행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6파전 확정...민주당 독주 견제 가능할까

임문영 전략공천 맞서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총출동 통합특별시장 첫 보선...AI·개혁·노동·기본소득 의제 경쟁

####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파전 구도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후보가 일제히 출마하

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에서 아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임문영(60)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59)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47) 후보, 진보당 전주연(51) 후보, 기본소득당 신

지혜(38) 후보, 무소속 구본기(41)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진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장 출판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전략공천한 임문영 후보를 앞세워 통합특별시장 후속 입법과 AI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부각하고 있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과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워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성



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국회정책연구위원과 TBN 광주교통방송 본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독점 구조 견제와 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이재명 정부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을 지냈다.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 성향 표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광주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경력을 앞세워 노동·돌봄·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대개혁 담론을 부각하고 있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촛불행동 공동대

표 출신 활동가로, 내란 청산과 자주 정치 등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재산 신고액은 배수진 후보가 19억 884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문영 후보 13억8694만원, 안태욱 후보 5억 1191만원, 구본기 후보 3억3778만원, 전주연 후보 3억3555만원, 신지혜 후보 3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광주경찰청, 전남남도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특별위원회 안전보건공단, GTCL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